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여러분, 큰 폭우가 내려서 길이 다 막혀버린 경험이 있나요? 자동차도 멈추고, 길도 끊기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순간, 구조차가 나타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줄 때 얼마나 안심이 되나요? 오늘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다시 마음을 바꿔 군대를 보내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니 도망갈 곳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겁에 질려 모세를 원망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그대로 있을 걸 그랬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셔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무사히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막다른 길 같아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길이 있어요. 걱정하거나 두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도 삶에서 겁나는 일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시험이 어렵거나 친구와 다툴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길을 여실 거야!”라고 믿으며 기도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여세요!”

예배 순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다 같 이

말 씬 봉 독 출애굽기 14:21~31절 다 같 이

설 교 두려움 앞에서 열린 하나님의 길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내가 매일 해야 하는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축복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믿게 해주세요.

겉보기엔 막힌 길 같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나요?
2. 내가 요즘 걱정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말기고 믿을 수 있을까요?